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라 한다), (주)GIMCO는 정부의 에너지환경 변화 및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시설 기반 분산자원 활용 마이크로그리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실증”(이하 “실증단지 구축”이라 한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정부의 에너지정책 과제인 “실증단지 구축”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신성장동력 확보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호협력의 범위]

- 협약 당사자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에 공감 한다
- 협약 당사자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확산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 확립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한다.
- 이와 같은 공통의 인식 아래 협약 당사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사당동 소재 신동아5단지 아파트에 “실증단지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협약 당사자는 실증단지를 구축함에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떠한 비용의 부담이 없도록 하며, 향후 태양광 설비와 ESS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실증단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대 및 단지 현황조사, 시설의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또한 협약 당사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안전분야 등의 과제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상호의무]

- 협약 당사자는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하며 협력에 필요한 자료나 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2.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기타 상대방이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일방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제4조 [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업무수행 과정이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간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기간 및 변경]

1.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2. 본 협약기간 중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본 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협약서의 작성과 보관]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16년 09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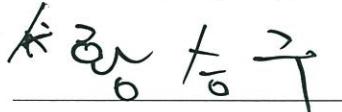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 창 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 상 훈




(주)진코

대표 김 종 택

